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열어¹⁾, 황혜영²⁾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ing character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Yeol-Eo Chun¹⁾, Hye-Young Hwang²⁾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4학년으로 하였으며, 결과분석은 SPSS 23.0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은 212.71±27.53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3.48±.60점,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은 3.87±.64점으로 나타났다. 돌봄인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돌봄인성이 우수할수록 긍정적인 임상실습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423, p=.000$),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돌봄인성이 우수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678, p=.000$). 본 연구결과 돌봄인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간호대학생,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This study was implemented under explanation of purpose and agreement of a total of 240 students attending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are nursing students in 3rd and 4th grade.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23.0win program. As a result, the car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was 212.71±27.53,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3.48±.60, and the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was 3.87±.64. Looking at the

Received (January 14, 2020), Review Result(February 26, 2020)

Accepted(March 15, 2020), Published(March 31, 2020)

¹⁾Assistant Professor, 31065, Dept. Nursing Science, Baekseok Culture Univ., 58 Munam-ro, Cheonan, Korea
E-mail: yeoleo2011@busc.ac.kr

²⁾(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03617, Dept. Nursing Science,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hhy@snjc.ac.kr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 2020 HSST

relationship between caring characte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the higher the caring character the practice satisfaction ($r=.423$, $p=.000$) showed higher positivity. Also, higher caring character scores resulted in higher self-efficacy($r=.678$, $p=.000$). The higher the caring character,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th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car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Nursing students, Caring characte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돌봄은 보편적 인간현상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 생존에 필수적이며, 간호의 중요한 요소로 간호교육 및 훈련의 핵심이다. 돌봄은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대인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헌신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양육적 방식이다[1].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최근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생 수의 증가, 환자의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간호수행을 거부함에 따라 임상실습은 주로 관찰이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고, 환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대처능력 부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3, 4].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함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는 저하되고 실습교육의 목표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교육 환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피드백과 심리적 안정감의 실습환경이 요구되며, 스트레스 관리 및 불안, 긴장감 등 정서적 측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5, 6]. 또한 상급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7]. 그리고 이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8, 9].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맡은 역할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10].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11]. 임상실습 시 돌봄인성을 가진 간호대학생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감정으로 대상자의 건강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이에 임상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돌봄인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돌봄인성 함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3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소재하고 있는 간호학과 재학중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 할 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이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간(2019년 9월 1일~9월 30일)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후, 설문지를 회수 받는 방식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307명 중 불성실한 응답 7부를 제외하고 총 3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돌봄인성

돌봄인성 측정 도구는 김명혜[12]의 연구에서 개발한 환자존중, 공감, 성실, 용기, 헌신, 전문직

태도, 전문직 윤리, 정체성으로 구성된 도구로 총점은 최소 15점에서 최대 255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인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인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명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2.3.2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는 조결자와 강현숙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13]가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측정도구로 실습내용 9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 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2.3.3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도구는 Harvey, McMurray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Nursing Self-Efficacy Scale(NCSE)과 Parker의 간호사 대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안은경[14]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자신이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은경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4 연구분석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40명(80.0%)이며, 남자는 60명(20.0%)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159명(53.0%), 4학년이 141명(47.0%)이었다. 나이는 평균 22.71 ± 3.92 세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184명(61.3%), 있는 경우가 116명(38.7%)이었다. 성적은 3.5~4.0과 3.0~3.5인 경우가 각각 116명(38.7%)이었고, 건강상태는 평균 3.79 ± 0.83 , 대학생활 만족은 평균 3.49 ± 0.76 , 전공 만족은 평균 3.76 ± 0.76 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주 실습지도자는 204명(68.0%)이 일반간호사로부터 실습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유형에서는 임상간호사 관계가 171명(5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Memarian 등[15]의 연구에서 임상간호 수행 시 대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임상간호사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인관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습수행 및 관찰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행 대 관찰이 3:7인 경우가 228명(7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과 이론과의 연계에 있어서 실습 전에 이론수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115명(38.3%), 실습 전에 일부 이론수업을 하는 경우가 178명(59.3%)으로 대부분 실습 전에 이론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 정도는 212.71 ± 27.53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구성요인에서는 환자존중이 64.08 ± 8.50 , 공감이 64.08 ± 8.50 , 성실이 64.08 ± 8.50 , 용기가 64.08 ± 8.50 , 헌신이 11.81 ± 2.37 , 전문적 태도가 16.66 ± 2.64 , 전문적 윤리가 12.64 ± 1.90 , 정체성이 12.64 ± 1.90 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3.48 ± 0.60 으로 이송현[16]의 연구결과인 3.10, 유혜순[17]의 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으로 실습교과가 3.75 ± 0.6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내용 3.62 ± 0.60 , 실습환경 3.45 ± 0.70 , 실습평가 3.40 ± 0.62 , 실습시간 3.33 ± 0.92 , 실습지도 3.30 ± 0.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교과가 가장 높고 실습 내용이 가장 낮은 이송현[16] 연구와 실습지도가 가장 높고 실습환경이 가장 낮은 유혜순[17]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상자 개인별로 처해진 실습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3.87 ± 0.64 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18],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N=300)				
항목	세부항목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자	240	80.0	-
	남자	60	20.0	
학년	3학년	159	53.0	-
	4학년	141	47.0	
나이		-	-	22.71±3.92
종교	있음	116	38.7	-
	없음	184	61.3	
건강상태		-	-	3.79±.83
대학생활 만족도		-	-	3.49±.76
전공만족도		-	-	3.76±.76
임상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임상간호사	171	57.0	-
	환자 또는 보호자	45	15.0	
	동료	28	9.3	
	임상현장지도자	14	4.7	
	타 의료인	17	5.7	
	기타	25	8.3	
성적	4.0이상	34	11.3	-
	3.5이상-4.0미만	116	38.7	
	3.0이상-3.5미만	116	38.7	
	3.0미만	34	11.3	
주 실습지도자	수간호사	75	25.0	-
	프리셉터 간호사	21	7.0	
	일반간호사	204	68.0	
실습 수행과 관찰 비율	수행:관찰=3:7	228	76.0	-
	수행:관찰=4:6	37	12.3	
	수행:관찰=5:5	21	7.0	
	수행:관찰=6:4	4	1.3	
	수행:관찰=7:3	10	3.3	
이론과 실습의 연계	실습 전 이론수업 시행	115	38.3	-
	실습 전 이론수업 없음	7	2.3	
	실습 전 일부 이론수업 시행	178	59.3	

3.3 간호대학생의 특성과 돌봄인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과 관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관계에서[Table 3], 돌봄인성은 3학년보다 4학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2.752$, $p=.006$), 건강상태($F=.272$, $p=.000$), 대학생활 만족도($F=.293$, $p=.000$), 전공 만족도($F=.420$, $p=.000$)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에서 남자와($t=-2.707$, $p=.007$), 건강상태($F=.219$, $p=.000$), 대학생활 만족도($F=.224$, $p=.000$), 전공 만족도($F=.370$,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은 4학년($t=-2.752$, $p=.006$)과 건강상태

($F=.174, p=.003$), 대학생활 만족도($F=.281, p=.000$), 전공 만족도($F=.310,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오윤정[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공만족은 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때 스스로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취업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Table 2] caring characte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N=300)

항목	세부항목	평균±표준편차(M±SD)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교과	3.75± .66
	실습내용	3.62± .60
	실습지도	3.30± .76
	실습환경	3.45± .70
	실습시간	3.33± .92
	실습평가	3.40± .62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자가효능감	3.87± .64
돌봄인성(255점)	환자존중(75점)	64.08±8.50
	공감(45점)	37.58±5.20
	성실(40점)	33.75±4.80
	용기(30점)	24.10±3.85
	헌신(15점)	11.81±2.37
	전문직 태도(20점)	16.66±2.64
	전문직 윤리(15점)	12.64±1.90
	정체성(15점)	12.08±2.12

[표 3] 일반적 특성과 돌봄인성,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caring characte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00

항목	세부항목	돌봄인성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M±SD	t/F/r(p)	M±SD	t/F/r(p)	M±SD	t/F/r(p)
성별	여자	213.03±26.94	.398	3.43±.58	-2.707	3.85±.61	-1.209
	남자	211.45±30.00	(.691)	3.85±.60	(.007)	3.96±.75	(.228)
학년	3학년	208.64±29.18	-2.752	3.43±.62	-1.406	3.76±.66	-3.354
	4학년	217.31±24.86	(.006*)	3.53±.58	(.161)	4.00±.59	(.001*)
종교	있음	216.25±26.19	1.771	3.56±.59	1.838	3.90±.68	.607
	없음	210.48±28.19	(.078)	3.42±.60	(.067)	3.85±.61	(.544)
성적	4.0 이상	209.14±26.62	5.300	3.44±.61	2.040	3.88±.68	1.750

	3.5 ~ 4.0	218.56±25.05	(.001*)	3.56±.62	(.108)	3.97±.61	(1.57)
	3.0 ~ 3.5	212.16±29.63		3.45±.59		3.81±.64	
	3.0 미만	198.23±23.74		3.29±.52		3.73±.70	
건강상태		.272(.000*)		.174(.003*)		.219(.000*)	
대학생활 만족도		.292(.000*)		.281(.000*)		.224(.000*)	
전공 만족도		.420(.000*)		.310(.000*)		.370(.000*)	
대인 관계 어려움	입상간호사	212.87±27.65	.800 (.550)	3.43±.58	.890 (.488)	3.86±.65	1.045 (.391)
	환자 또는 보호자	207.42±22.42		3.48±.54		3.75±.64	
	동료	214.32±25.71		3.53±.69		3.96±.50	
	입상현장지도자	209.42±40.26		3.42±.51		3.78±.89	
	타 의료인	221.88±21.90		3.64±.70		4.11±.60	
	기타	214.96±32.25		3.64±.70		3.96±.53	

*P<.05

3.4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의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5]. 이때 단계 선택법을 사용하여 투입 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 선택되도록 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하게 선택된 변수인 성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돌봄인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007$, $p=.000$).

[표 4]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변수	β	t	p
돌봄인성	.007	6.528	.000
adjusted R2 : .260, F=52.128, p<.05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하게 선택된 변수인 학년,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돌봄인성($\beta=.015$, $p=.000$), 전공만족($\beta=.087$, $p=.027$)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인성은 간호사 개인의 인성에 초점을 두며[20], 개인의 성품윤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돌봄인

성을 지닌 간호대학생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배려와 공감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내면의 감정으로 대상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표현될 수 있다[12]. 연구결과 돌봄인성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8, 9], 임상실습 시 맡은 역할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10].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돌봄인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5] Factors affecting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변수	β	t	p
돌봄인성	.015	13.623	.000
전공만족	.087	2.218	.027
adjusted R2 : .469, F=131.030, p<.05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인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임의의 간호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으로 3,4학년으로 하였으며, 분석은 SPSS 23.0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240명으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성적은 3.5~4.0과 3.0~3.5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은 $3.49 \pm .76$, 전공 만족은 $3.76 \pm .76$ 으로 대체적으로 평균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시 주로 일반간호사로부터 실습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유형에서는 임상간호사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습수행 및 관찰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행 대 관찰이 3:7인 경우가 228명(7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과 이론과의 연계에 있어서 실습 전에 이론수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115명(38.3%), 실습 전에 일부 이론수업을 하는 경우가 178명(59.3%)으로 대부분 실습 전에 이론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 정도는 212.71 ± 27.53 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습교과가 $3.75 \pm .66$ 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지도 $3.30 \pm .76$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3.87 \pm .64$ 을 보였다. 돌봄인성은 3학년보다 4학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과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에서 남자와($t=-2.707$, $p=.007$), 건강상태

($F=.219, p=.000$), 대학생활 만족도($F=.224, p=.000$), 전공 만족도($F=.370,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은 4학년($t=-2.752, p=.006$)과 건강상태($F=.174, p=.003$), 대학생활 만족도($F=.281, p=.000$), 전공 만족도($F=.310,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돌봄인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007, p=.000$).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돌봄인성($\beta=.015, p=.000$), 전공만족($\beta=.087, p=.027$)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돌봄인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수행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돌봄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돌봄인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J. Kim. Interpersonal caring, Soomoosa Seoul. (2017).
- [2] M. O. Kim.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 Vol.19, No.6, pp. 609-617.
- [3] M. H. Nam, M, R, Le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 Vol.22, No.4, pp. 527-536.
- [4] M. K. Jeon, M.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2013). Vol.11, No.4, pp. 293-302.
- [5] M. J. Kim.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linical Competency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2018). Ph.D thesis, Daegu.
- [6] J. J. Ha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2). Ph.D thesis, Seoul.
- [7] B. S.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 Vol.17, No.2, pp. 159-167.
- [8] E. S .Lee., J. S. Kim., A. Y. Kim. Effects of Clinical Practicum Reinforcement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the ICU.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1). Vol.17 No.2. pp.262-274.
- [9] H. S. Jeo., M. S. Seo. A Study on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and Clinical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Adult Nursing Association Winter Conference*. (2010). Vol.2010 No.12, pp..68-69.
- [10] S. Kendal, L. Bloomfield.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5), 51(2), pp..174-181.
- [11] A. Y. Kim.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 Method Research*. (2004), Vol.16. No.1, pp..1-38.
- [12] M.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assessing caring - character of nusing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2018), Ph.D. thesis, Daejeon.
- [13]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 Vol.10 No.2, pp.219-231.
- [14] E. K. Ahn. (A) model for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and work performance.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0), Ph.D thesis, Daejeon.
- [15] N. Memarian, I. Concina, A. Braga, S. M. Rozati, A. Vomiero, G. Sberveglieri. "Hierarchically Assembled ZnO Nanocrystallites for High Efficiency Dye Sensitized Solar Cells", *Angewandte Chemie*, (2011.). Vol.123, No.51, pp. 12529-1253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ing character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 [16] S. H. Lee.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6), Ph.D thesis, Daejeon.
- [17]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 Vol.17 No.2, pp. 1129-1144.
- [18]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Fatigu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15). Vol.40 No.1, pp. 24-36.
- [19] Y. K. OH.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1, Dong-A University (2015), Ph.D thesis, Daejeon. Busan.
- [20] M. S. Roach, Caring. The Human mode of being: A blueprint for the health professions (2nd rev. ed.), Canadian Healthcare Association Press, Ottawa, (2002).